

망명 임시 정부의
온갖 뒤치닥끼리를 다 막아

말며느리 노릇을 마다 않고 살림을 꾸리면서
임정 안팎의 모든 것을 눈에 담고 귀에 모았던
정정화의 충격적 자전(自傳)!
그녀의 낮은 목소리가
이제야 우리를 부르기 시작했다.



북으로 가는 야간 열차

압록강에 띄운 거룻배

상해에서 온 여자

위기 일발의 상해 탈출

백범의 어머님 아니십니까?

강물 위에 뜬 망명 정부

●화탄계의 푸른 물

●대륙을 적신 피와 눈물

●토교에서의 마지막 밤

●“남은 대통령도 하고 그러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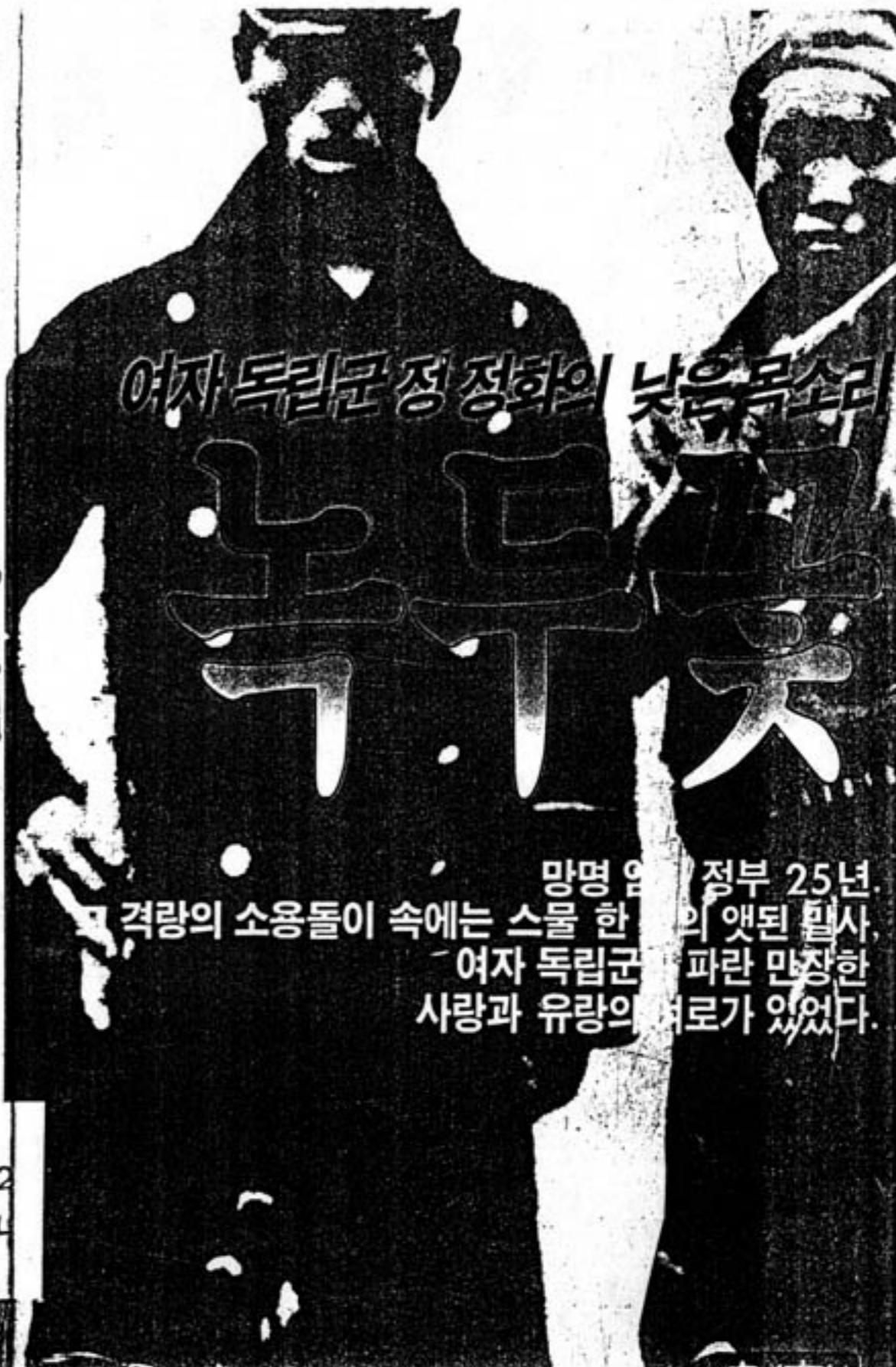
●평양으로 간 사람, 평양에서 온 사람

●새벽에 꾸리는 이삿짐

백범, 이시영, 이동녕, 차이석 등 실재 등장 인물 3백여 명과 더불어 수십만 리 피난길 위에서 펼쳐지는 응장한 대서사지 한편이 국내에 최초로 공개되는 자료 사진 40여 점과 함께 지금까지 묻혀 있

여자 독립군 정정화의 낮은 목소리

노두꽃



망명 임 정부 25년.
격랑의 소용돌이 속에는 스물 한 살의 앤된 텁사,
여자 독립군 파란 만장한 사랑과 유랑의 여로가 있었다.

는데 이제는 한
[이] 하나씩 들썩
[개] 되어 한독당
[체포하지 않은



필자

정정화(鄭靖和)는 1900년 8월 3일 서울에서 태어나 열 한 살 나던 해에 대한협회 회장을 지낸 동농 김가진의 아들 김의한과 결혼한다. 21세되던 해 이미 중국 상해에 가 있던 시아버지와 남편의 뒤를 따라 상해로 탈출함으로써 중국에서의 망명 생활을 시작한 그녀는 곧 임정 밀사의 자격으로 독립 운동 자금 모금의 일정을 따고 지하 조직을 통해 국내에 참입. 은밀히 일정을 수행한다. 1차 국내 참입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국경을 넘나드는 동안 이십 대 초다운 나이를 모두 보낸 그녀는, 1932년 은봉길 의사 폭탄 투척 사건으로 임정 요인들과 함께 상해 프랑스 조계를 탈출. 망명 정부의 간 일을 뒷바라지하면서 해방되기까지 10여 년 동안 대륙의 피난길을 떠들게 된다. 중경에서 조국의 해방을 맞으며 이미 나이 오십을 바라보는 아낙네가 된 그녀는 전쟁 난민이라는 이름으로 조국에 발을 디디었으나 다시 6·25를 겪으면서 남편이 남북되고 가족이 헤어지는 와중에서 무역죄로 기소 구속되어 투옥되고 만다. 그리고 30년 세월, 임정에 몸담았던 원로들의 입에서 아직까지 '그때 그 아주머니'로 기억되고 중연되는, 이제는 예전에 할머니된 그녀가 백 년 남짓 쓰라린 세월의 모든 것을 비로소 말하기 시작한다.



의 첫 국회의원
해야 한다는 속
상에 다녀온 많
정부 수립이 어
제 의사로 선거
한독당원 중에
을 받은 것은 아

와 1950년에 들판
만 하더라도 공
간에 3년 사이
걸되었다. 또한
로 흘렀으므로
한 상황에서는
했던 이들이 남
다.
[1] 운동에 참여
보였고, 한민
치영(尹致英)은
[1]으로 최동오

지나.

백범의 '별세와 더불어 이 승만의 독재 정권은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시켰다. 「세계일보」 등 야당지가 폐간된 지는 이미 오래었고 국회 내에 반

| 결과를 알았

하는 무시무시한 것들이었으며 선거가 끝난 후에는 석방되었다. 최동오는 선거 운동원의 석방을 조건으로 투표 바로 며칠 전에 사퇴하고 말았다. 정국은

평양으로 간 사람, 평양에서 온 사람

내 땅에서 말은 또 한번의 피비린내
아들 자동이가 서울 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다. 백범이 피살된 후 두어 달 남짓 전국이 슬픔에 잠겨 있던 1949년 9월의 일이었다. 집안 일이나 성업이 관계하는 한독당 일이나 한결같이 이렇다 할 만하게 기쁜 일이 없었던 차에 아들의 서울대 입학은 하나의 경사였다. 다만 아들의 대학 입학을 마땅히 축하하고 또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 내외의 감사의 말을 들었어야 할 백범이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아니한 것이 몹시 마음에 걸렸다.

백범이 별세하기 꼭 두 주일 전 아들 자동이의 보성(晋成) 중학교(6년제) 졸업식이 있었다. 백범은 기꺼이 그 졸업식에 참석하여 축사까지 맡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자동이를 가리켜 '내 친자식이나 다름없는 학생'이라고 해서 졸업식장에 있던 성엄이 무척 자랑스럽게 여긴 적이 있었다. 무슨 사정 때문이었는지 나는 그 졸업식장에 참석하지 못해 백범의 축사를 나중에 전해 들었을 뿐이나 백범의 우리 집안 식구들에 대한 각별한 정을 새삼스레 느낄 수 있었다.

백범의 별세와 더불어 이 승만의 독재 정권은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시켰다. 「세계일보」 등 야당지가 폐간된 지는 이미 오래였고 국회 내에 반

대 세력인 소수 소장파들도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투옥되었었는데 이제는 한독당 차례가 된 듯했다. 아니나 다를까 한독당의 지방 조직들이 하나씩 물색 와해되기 시작하더니 당 운영 자금의 출처마저도 모두 드러나게 되어 한독당은 뿌리째 흔들리게 되었다. 당의 간부들을 공산당원으로 몰아 체포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여길 정도였다.

1950년 5월 30일에 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2년 전의 첫 국회의원 선거 때 불참했던 한독당 내부에서는 이 5·30총선을 두고 참가해야 한다는 측과 참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측의 의견이 대립되었다. 남북 협상에 다녀온 많은 사람들은 주위 정세나 국내 사정으로 보아 남북한의 통일 정부 수립이 어렵다고 보아 5·30총선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한독당의 전체 의사는 선거 불참이었으므로 조 소앙 등은 따로 사회당을 조직하기도 했다. 한독당원 중에는 개인의 자격으로 출마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한독당의 공천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성엄과 같은 이들이 남북한 통일 정부 수립을 낙관하였던 때와 1950년에 들어선 후의 국내외 사정은 판이하게 달랐다. 중국에서는 1946년만 하더라도 공산당이 전국토와 인구의 15퍼센트 정도만 차지하고 있었을 뿐인데 3년 사이에 정세는 완전히 바뀌어 1949년 10월 1일에 공산 정권이 수립되었다. 또한 미국의 정책은 소련과 새로 등장한 중공을 봉쇄하려는 경향으로 훌렸으므로 한반도 전체의 평화적인 통일은 더욱 요원해지기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남북 협상이라는 것이 이상일 뿐이었으므로 남북 협상에 참가했던 이들이 남한과 북한의 단독 정부 수립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5·30총선의 결과는 정치계의 흐름을 바꿔 놓았다.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5·10선거에 불참했던 사람들이 대거 진출했으며 특히 항일 운동에 참여했던 소앙이나 소해 장 전상 같은 이들은 당시 최고의 득표율을 보였고, 한민당의 중진인 조 병옥, 김 도연(金度演) 등이 고배를 마셨다. 윤 치영(尹致英)은 원 세훈(元世勳)에게 참패당했고, 정 일형(鄭一亨)도 관권의 압력으로 최 동오가 사퇴함으로써 겨우 당선되었다.

선거의 속사정은 살풍경한 것이었다. 소해는 옥중에서 당선의 결과를 알았고, 소앙의 선거 운동원 중 내가 아는 사람도 투옥당했는데 죄명은 간첩 윤운하는 무시무시한 것들이었으며 선거가 끝난 후에는 석방되었다. 최 동오는 선거 운동원의 석방을 조건으로 투표 바로 며칠 전에 사퇴하고 말았다. 정국은

문자 그대로 혼미(混迷)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6월 25일, 북괴군의 낭침이 있었다. 6·25는 이 땅의 사람들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나라고 예외일 수는 없었다. 내가 성엄과 떨어지고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것도 모두 6·25 탓이었다.

6·25가 터지기 6개월 전쯤에 우리는 돈암동의 큰시누이 집에서 살다가 지금의 세종 문화 회관 뒤인 종로구 도렴동으로 이사를 했었다. 나중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 우리가 도렴동으로 이사를 온 바람에 전방에서 대위로 근무하던 박 종길 군(토교에서 만났던 광복군이다)이 쌀 두 가마를 실고 피난을 했던 유하고자 돈암동 집을 찾아갔다가 결국 우리를 찾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한다. 우리는 그때 『국도신문』을 구독하고 있었는데 다음 날짜로 된 것을 저녁 늦게 받아 보곤 했었다. 서울이 함락되기 하루 전인 6월 27일 저녁에 나는 신문이 늦게 오는 까닭에 신문을 보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음 날인 28일 아침에 '국군 외정부 탈환'이라는 큰 제호의 신문을 읽었다. 정부는 이미 한강 다리를 폭파하고 도망친 다음이었다.

서울이 그처럼 빨리 합락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고, 또 바로 전 날인 27일에는 대통령 이승만이 서울 시민에게 안심하라는 방송까지 한 후여서 신문의 국군 승전보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서울을 내버리고 도주했던 자들이 9·28수복 이후 개선 장군인 양 귀경하여 잔류했던 서울 시민들을 죄인 취급하듯이 대하던 꽂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6월 25일부터 그 후 3개 월간은 한마디로 암흑과 적막의 세상이었다.

“모시러 왔습니다. 함께 가시지요”

우리 가족이 세들어 있던 도렴동 집의 주인은 동네에서 이름나 있는 사람이었다. 도렴동의 민보단 부단장 직책을 맡고 있던 그 주인은 재력도 제법 갖추고 있었던 모양인데 널찍한 한식 안채에서 살면서 바깥채는 2층으로 꾸며 세를 놓고 있었다. 서울이 북한의 인민군에게 떨어지자 그 집의 바깥채는 여성동맹에서 접수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게 되었고 집 주인은 내무서원들에게 불려가 호된 문초를 당했다.

그 동네에 살던 청년 두 명이 6·25 전에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6·25가 나자 출감되었다. 동네 민청에 가입되어 있는 이 청년 둘이 밤낮으

로 온 동네를 들쑤시고 다니면서 설쳐댔는데 한번은 성업을 밖으로 불러내서 “한독당도 반동이다” 운운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가했다. 성업은 즉시 조르구 이미 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법으로 처벌받을 만한 일이 있다면 모를까, 동리 민청에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몰라서 그랬을 겁니다. 알고야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종로구 인민 위원장 홍 상희(洪祥熹)의 대답이었다. 홍 상희는 중국에서부터 우리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육이오가 나자 북에서 내려와 종로구 인민 위원장직을 맡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로는 민청의 청년들이 성업을 꾀롭히는 일은 없었다. 더구나 서울시 인민 위원회 부위원장이 성업에게 사람까지 보내 인사를 전하면서 안심하라고 하였다. 아마 홍 상희로부터 우리의 소재를 전해 듣고 예 절을 생각해 인사치례를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성엄과 나는 6·25 때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었다. 모두 중국에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었다. 서울시 인민 위원장이던 한 지성도 그런 사람 중의 하나다. 한 지성은 안 중근 의사의 막내 동생 공근의 사위로 청년 시절부터 우리와는 잘 아는 사이였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과 인연이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는 중국이 아니었고, 한가닥 옛 인연만을 의지해서 넘기에는 너무나 많은 상처와 회생이 따를 것이 뻔한 남과 북이라는 높고 두터운 벽이 그들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다.

수복 전의 서울은 모든 것이 불확실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당장에 들리는 소식이라고는 국군이 계속 밀려 내려간다는 것뿐이었고 전선은 점점 더 서울에서 멀어져 갔다. 국민의 생명권을 거머쥔 정부가, 아니 한 나라의 통치자가 불과 몇 시간 후면 탄로날 거짓말을 공공연히 방송으로 떠벌리고 자기만 도주하는 세태에서는 모든 게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백범이 피살되던 날은 주한 미군이 고문단 5백 명만 남기고 철수를 완료한 날이기도 했다. 미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소련과 중공의 침략에 대한 방어 선에서 한반도는 제외된다고도 했다. 또 하나 대한민국의 어느 고위층 장군은 북진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아침은 개성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게 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다. 국민들은 모두 의심의 여지없이 그만큼 국군의 전력이 강화되어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내가 보기에도 그랬다. 그것은 정부와 국민 사이의 최소한의 언약이기 때문이었다. 그

런데 나중에 나타난 결과는 무엇인가? 서울은 모든 것이 불확실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전세의 향방이라는 거국적인 문제는 셈하지 않더라도 서울에서 우선 식량 마련이 급선무였다.

7월에 연합군 지상 부대가 부산에 상륙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족끼리의 살상도 안타까웠지만 이제는 연합군까지 끼어들었다는 것이 더욱 가슴을 쓰라리게 했다. 중국의 국공 내전이며 항일 투쟁을 보아온 나에게 6·25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었다. 9월에 들어서면서 미군의 서울 공습이 잦아졌고 15일에는 미군이 인천에 상륙했다는 풍문이 들렸다. 인천 쪽에서 연일 비행기의 폭격소리와 함포소리가 들리던 어느 날이었다. 자동차 한 대가 도련동 우리집 앞에 와서 섰다. 차에서 내린 건장한 청년 한 사람이 성업을 찾았다.

“김 선생님, 소양 선생 댁에서 모임이 있으니 함께 가시죠. 모시려 왔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지 못할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성업도 선뜻 응하는 눈치가 아니었다. 정년의 그 말이 끝나자 성업이 내게 준 눈길에서 협사리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 나는 성업의 판단에 말기려는 뜻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성업도 별다른 말이 없었다. ‘소양 선생 댁에서의 모임’이 무엇 때문인지 알 길이 없었다. 성업의 발길은 마냥 무거워 보였다. 그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본 성업이었다.

성업은 그렇게 남북되었다. 소양도 남북된 것은 물론이다. 안재홍, 조완구, 김규식, 엄항섭, 최동오 그 외에도 많은 유명 정치인들이 한꺼번에 북으로 끌려갔다.

왜? 왜 이다지 험하기만 할까? 왜 이다지 매정하고 야박할까? 나는 그때 비로소 조국에 하소연했다. 잘못이 내게 있다면 나를 처벌하라고, 내가 더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나를 부르라고. 내가 불들고 있는 사람을 부르지 말라고. 벌 주지 말라고. 그러나 조국은 말이 없었다. 그리고 36년이 덧없이 흘렀다. 조국은 끝까지 침묵했고, 그 36년의 하루하루는 혹시나 하여 기다리고, 내 분(分)이겠거니 체념하고, 그래도 또 모르지 하며 헛된 기대도 가져 보면서 한 달 한 달 천 조각을 깁듯이 예워 온 나날이었다. 어찌 나 하나뿐이겠는가. 내가 열·한 살 나이에 동갑나기인 성업에게 시집왔을 때 우리는 이성지합(二姓之合)이니 부부 유별(夫婦有別)이니 하는 지아비와 지어미의 사이이기 이

전에 서로 입술도 비쭉거리고 혀바닥 놀림도 해대는 소꿉동무였다. 사실 성업과 나는 40여 년을 함께 살아오는 동안 아기자기하고 부부간의 애정을 들판 나누어 가지는 그런 사이는 아니었다. 오히려 다른 적이 더 많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동고 동락의 40년 세월은 둘 사이를 묶는 어설프고 설익은 애정보다 더 질긴 끈이었고 믿음이었으며 이해였고 포용이었다.

성업의 본디 성품이 강인하고 몸도 건강한 편이긴 했지만 그의 아내인 나만이 느낄 수 있는 연약함도 없지 않았다. 중국에서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었을 때 참기 어려워하고 힘들어 했던 것은 나보다도 오히려 성업 쪽이었고, 집안 일에 대해 나보다도 더 각별히 신경을 쓴 것도 성업이었다. 특히 성업은 외아들인 자동이를 무척 아끼고 애지중지했다. 그러니 그가 지금껏 살아 있다면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정신적인 부담이 더욱 크리라고 본다. 만약 성업이, 자동이의 아버지가, 내 남편인 그가 살아 있다면 말이다. 나는 이제 구십 수(壽)를 바라보는데…….

보따리를 이고

성업이 떠난 후 나는 당장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다. 서울이 수복되긴 했으나 아직도 전쟁중인 것은 마찬가지였다. 이것저것 돈벌이 할 만한 것을 찾아보다가 결국 행상을 나서기로 하고 보따리에 현옷가지들을 주워모아 머리에 이고 나섰다. 제대로 월 턱이 없었다. 장사에 반드시 거짓이나 속임수가 따르는 것은 아닐 테지만 어느 정도의 상술은 필요했다. 장사 소질이라고나 할까. 나처럼 장사에 소질이 없는 사람도 드물 것이다. 자동이도 돈벌이를 할 생각으로 시장 바닥을 여기저기 누비고 다녔다. 역시 신통치 않았다. 우리 모자는 일단 집을 다시 돈암동 시누이에게로 옮겼다. 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시누이도 함께 모여 살자는 의견이었다.

스물 두 살이던 자동이는 그때부터 일거리를 얻으려고 미군 부대를 찾았다. 학교 다닐 때 자동이의 영어 성적이 남에게 뒤떨어지는 편은 아니라 제법 영어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는 있었지만 유창한 통역까지 해낼 실력은 못 되었다. 그러나 식당 심부름이라도 할 수 있다면 우선은 자기 한 몸 먹는 것이 해결될 것이고 월급은 그대로 남길 수 있으리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을 가지고 김포 비행장이며 부평 등지의 미군 부대로 일자리를 찾아다녔던 것이다.

마침내 자동이가 내 걸을 떠나 부평으로 내려가서 미군 부대에 취직한 것은 1950년 12월이었다. 전쟁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떨어져 있다는 것이 자꾸만 마음에 걸리긴 했으나 별수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결국 6·25는 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다.

자동이가 일자리를 얻기 한 달 앞서 평양을 점령하고 압록강변 초산에까지 진격해 들어갔던 국군은 10월의 중공군 개입으로 12월에 평양에서 철수해야 했고 다시 남으로 밀리기 시작했다. 사리원에서 중공군을 격퇴했다는 등의 신문 보도는 이제 믿을 게 못 되었다. 따라서 서울은 다시 한번 곤경에 처할 입장이었다. 시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더니 너도 나도 피난 짐보따리를 꾸리기 시작했다. 나는 망설였다. 무작정 피난길을 떠나 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그 무렵 돈암동 집에는 시어머니와 나, 큰시누이, 그리고 조카 석동이의 딸 아이가 함께 있었다. 조카 석동이는 광복군 제2지대와 함께 1946년 봄에 귀국한 후 성업의 죽마 고우인 청전이 상범 화백의 장녀와 결혼해서 육아를 나던 해에는 이미 두 살된 딸 하나를 두고 있었다.

이들 사이의 혼담은 석동이가 귀국하기 전부터 있었는데 처음에 청전이 성업에게 이들의 혼인을 제의했었다. 집안으로 보아서야 서로가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지만 본인들의 의사도 들어봐야 했으므로 귀국 후에 맞선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둘은 서로가 만족스러워하지 않았다. 석동이는,

“무슨 여자가 꼭 남자 같군요.”

하고, 신부감인 건진(建珍)이도,

“남자가 너무 암전하기만 해요.”

했다.

조카 석동이나 조카며느리가 될 건진이나 모두 상대를 잘 파악하고 그다지 흡족하게 느끼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해서 언제 봤느냐는 식으로 매몰차게 등을 돌리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표정들이었다. 마침내 둘은 합해졌고 나는 조카며느리를 얻게 되었다. 석동이의 부모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여서 성업과 내가 실질적인 부모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 두 사람이 부부의 예를 올리게 된 데에는 양가 부모들의 은근한 압력도 없지 않았다.

석동은 중국말을 유창하게 했다. 그는 미군 통역으로 취직해서 11월에 서울을 떠났고, 조카며느리도 딸을 내게 맡긴 채 부산으로 내려갔다. 얼마 후에

큰시누이 역시 한국 은행에 다니는 남편과 함께 부산으로 내려가게 되어 돈암동 집에는 일흔이 넘은 노모와 두 살짜리 손녀와 나만이 남게 되었던 것이다. 조카며느리와 시누이는 서울이 위험하게 되면 어머니를 모시고 부산으로 내려오라는 말을 했었으나 내 처지로서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무작정 가만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서울에서는 젊은이들을 모두 소집해서 제2국민병으로 입대를 시키는 중이었다. 우선 자동이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평으로 내려가서 길을 물어물어 자동이가 근무하는 미군 부대를 찾았다. 다행히 자동이는 아직 그 부대에 있었으나 이미 후퇴할 준비를 다 해놓았다는 것이었다. 자동이는 내 걱정을 많이 했다.

“애, 내 걱정은 말아라. 내가 아직은 움직일 수가 있어. 서울이 위험하면 할머님 모시고 피난을 갈 테니 집 걱정은 말고 너나 몸조심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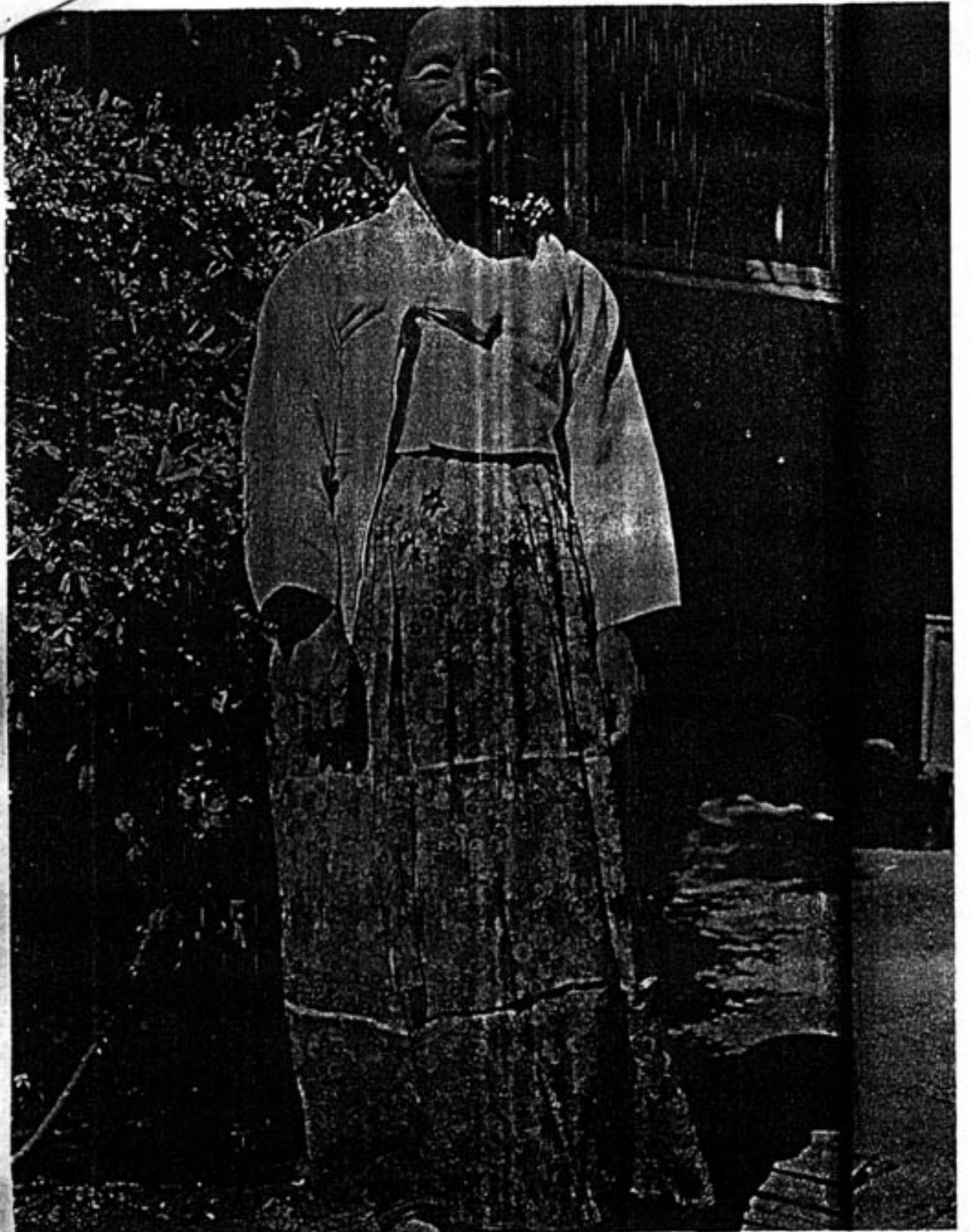
자동이가 군에 가지 않고 미군 부대에 있다는 것이 적이 안심되었고, 부대가 후퇴하면 자동이가 따라가게 될 것이므로 보다 안전할 것 같았다. 그래도 자식을 데어 놓고 서울로 올라오는 내 마음은 개운치가 않았다. 자동이를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질없는 생각만 머리에 꽂 차울랐다.

개성 인삼 사들고 평양에서 온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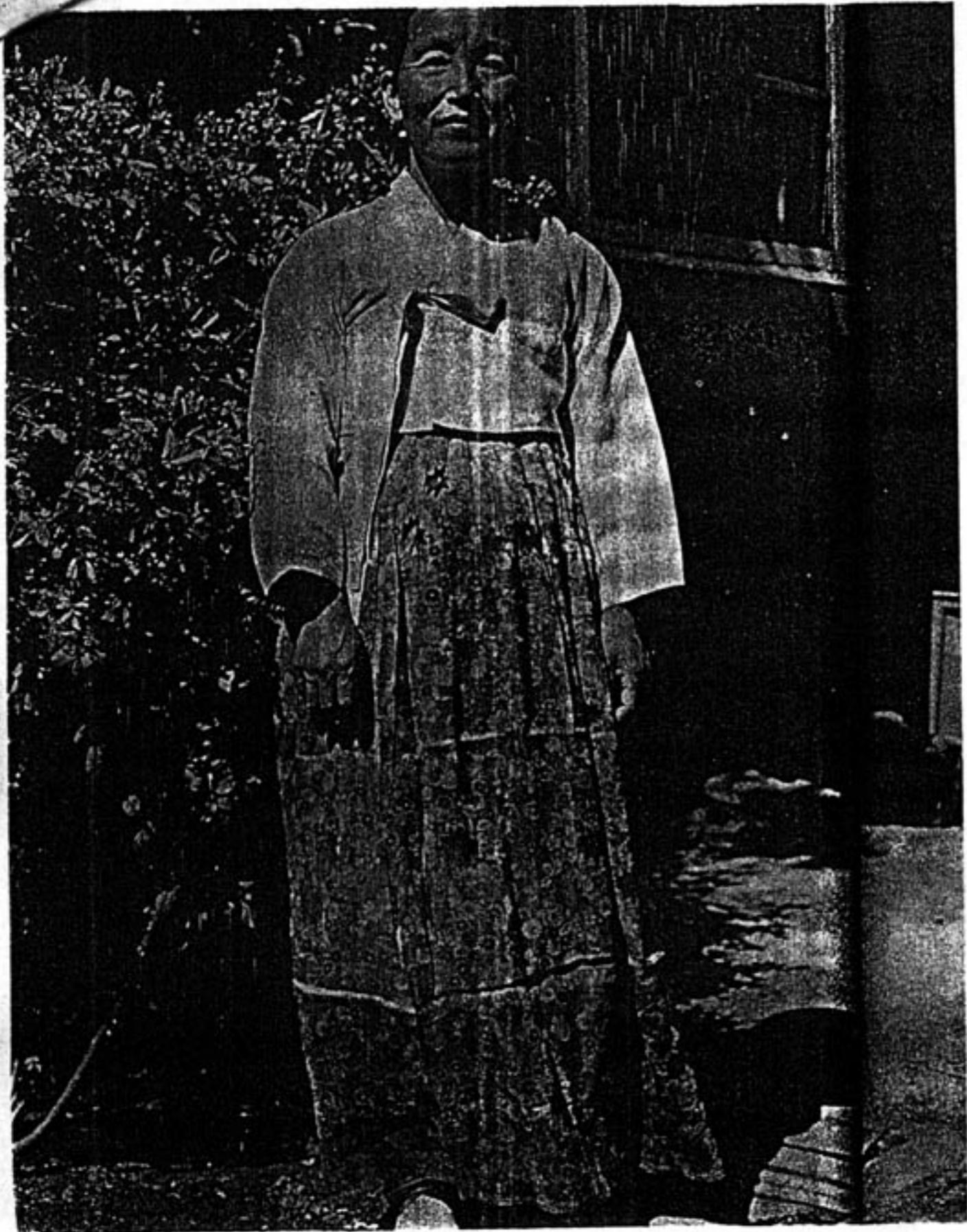
서울에 돌아와 일주일쯤 지난 후에 대피령이 떨어졌다. 홍남에서도 모두 철수를 해서 피난민과 함께 남으로 내려온다는 소식도 들렸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안심하라던 당국에서 이제는 당장 떠나라고 성화였다. 관청이나 주요 기관들은 벌써 철수한 뒤며 공직자 가족들도 이미 서울에 남아 있지 않다는 풍문이 번졌다. 그러니 그때까지 서울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서민들이었다. 1950년 그해가 마지막 날들을 하루씩 잡아먹고 있을 때였다.

이듬해 첫 아침. 서울은 유령의 도시였다. 마치 우리 세 쇠구만이 남아 있는 듯했다. 해가 바뀌는 것조차도 달갑지 않았고, 마냥 텅 비어 있는 골목과 큰길에 혹시 낯선 사람의 그림자라도 비치게 되면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었다. 차라리 총구 앞에서 손을 들고 서 있는 편이 나을 듯싶었다.

어린아이의 손을 잡아끌고 남부 여대(男負女戴)하여 서울을 빠져나가던 피난민들의 뒷모습이 자꾸만 눈에 어른거렸다. 허둥지둥 철수하던 경찰과 군대들, 마치 다시는 못 돌아올 것만 같아 두고 가는 집을 되돌아보곤 하던 할머



6·25동란중 외아들과
조카여느리를 남쪽으로 떠나보내고 서울
둔암동 집에서 훌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을
때의 필자(옆). 중경 시절 신분증에 붙었던
필자의 증명 사진으로 중경시 경찰국의
찰인이 찍혀 있다(위)



6·25동란증 외아들과
조카며느리를 남쪽으로 떠나보내고 서울
돈암동 집에서 출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을
때의 필자(옆), 중경 시절 신분증에 붙었던
필자의 증명 사진으로 중경시 경찰국의
찰인이 찍혀 있다(위)

니, 남편의 팔을 부둥켜안고 종종걸음으로 따라가던 임산부, 그 축에도 섞이지 못한 채 명하니 바라다보기만 하던 나 같은 사람.

피난은 내게 어쩌면 평범한 생활이었다. 중국에서의 끝도 없던 그 피난 생활이 이제는 양금으로 가라앉아 있는 듯했으나 또 다른 피난 행렬을 눈앞에 그리면서 다시금 뿐에게 일어나 가슴을 채웠다. 그러나 지금은 성엄도 없고 자동이도 멀리 떨어져 있다. 여러 선생님들의 소식도 모른다. 더구나 내 한 몸을 스스로 건사해야 할 뿐 아니라 노모와 어린 손녀를 돌보아야 할 처지인데도 조바심이 나거나 불안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나이 오십 줄에 들어선 아낙네에게 전쟁은 오히려 담담한 것이었다. 피비린내 끼치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랫동안 지내온 탓일 수도 있다. 연유야 어디 있든지 나는 나이답지 않게 6·25를 겪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우리집 맞은편 집에도 한 가족 중 몇 사람이 남아 있었다. 그런대로 꽤 의지가 되었다. 돈암동 전체를 통틀어 볼 때 2,30집 걸려 한 식구 정도가 눈에 떨 정도였고, 그나마도 나이 든 부인들과 어린아이들뿐이었으니 적막하고 읊씨년스럽기가 그지없던 마당에 서로 내왕할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것은 천만 다행한 일이었다.

서울에 남아 있는 동안에는 그럭저럭 생활을 꾸려나갈 수가 있었다. 조카며 느리가 떠나기 전에 쌀 서너 말과 밀가루 한 부대, 설탕 두어 근을 사들여 놓았었고 용돈도 조금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세 식구가 먹기에는 그리 아쉽지 않았으나 언제까지 버텨야 할지를 몰라 아껴 먹어야만 했다.

서울 시민들이 대부분 피난했더라도 최소한 몇만 명쯤은 남아 있었을 텐데 시장도 거의 철시하다시피하고 가게도 몇 군데만 열어 놓고 있던 때에 무엇을 어떻게 먹고 지냈는지 지금 생각해 봐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서울을 덩 비게 만들고 내가 6·25를 겪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1·4후퇴 얼마 후 혹시나 하고 민세 안 재홍의 집에 들러 보았다. 민세도 남북되었기 때문에 집이 비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집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라 헛걸음하는 셈치고 찾아간 것이었다. 민세의 집은 고급 주택이었다. 꽤 넓은 대지에 반 양식으로 집을 지어 놓아서 그 무렵에는 저택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했다. 민세의 집에는 이북에서 내려온 기관이 들어 있었다. 간판도 붙어 있지 않았고 분위기도 그리 험악한 편은 아니었다. 집에 들어서자 청년 한 명이 다가와 용건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집 주인을 찾

아왔다고 하니 별다른 제지 없이 안으로 들어가 보라고 했다. 안채에는 뜻밖에 민세의 부인이 혼자 남아 집을 지키고 있었다.

“아니, 어쩐 일이세요? 피난 안 나가셨어요?”

아는 사람을 만나 반갑기도 했지만 홀로 남아 있는 것을 의아해 하며 묻는 내 말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민세 부인의 대답은 순간 나를 당혹하게 만들었다. 얼굴에 모닥불을 끼얹은 것 같았다.

“혹시 그분의 소식이 있을까 해서 혼자 남았어요.”

내가 남았던 것도 성엄의 소식을 애태게 기다려서였던가? 아니라면 내가 성엄과 애틋한 정이 없어서일까? 아니다. 그것은 이미 저질러진 일에 대한 나의 체념이었다. 포기였다. 그러나 민세 부인이 조심스럽게 내게 일러 준 뒷 말은 그런 체념에 일말의 서광을 비춰 주었다.

“김 홍곤(金興坤)이라고 아시지요?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이북 기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혹시 바깥분 소식을 알지도 모르지요.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마치 성엄을 만나게 해준다는 소리같이 들렸다. 성엄이 집을 나간 후 내가 들어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성엄이 소양의 집에 간 것이 확실하다는 것과 그 곳에서 하루를 묵은 후 트럭에 실린 체 영천 고개를 넘어 평양으로 끌려갔다는 것뿐이었다. 9·28 서울 수복 후 소양의 동생인 조 시원에게 들은 바로는 그게 전부였다.

6·25 직전까지 소양의 비서로 일했던 김 홍곤도 나를 잘 알고 있었다. 홍곤은 나를 보자 먼저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내가 성엄의 소식을 물기 전에 자신도 민세, 성엄 등과 같이 평양까지 동행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먼저 성엄의 소식을 들려 주었다.

“무사합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홍곤은 성엄에 대해 아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었으나 내게는 성엄이 무사하다는 말밖에 들리지 않았다. 성엄은 살아 있다. 그 한마디 말이 다른 어떤 말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반가웠다.

홍곤은 성엄의 소식을 전하고 나서 주로 지난 이야기들을 했다. 그때까지도 내 마음 속에 남과 북이라는 괴물은 있지 않았다. 그런데 어쩐일일까? 홍곤의 얘기를 듣는 동안 내게는 그 괴물이 살아났다. 홍곤의 말 속에는 전혀 그런 괴물의 이야기가 없었는데도.

성엄의 생존 소식을 들려 준 홍곤에게 무조건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할 사람

은 바로 나였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 고마움보다는 경계심이 앞섰고 알지 못할 거리가 생겼다. 어쩐 일일까? 그는 북에서 온 사람이었다. 나는 남에 있는 사람이었다. 남과 북은 그렇게 사람을 갈라 놓았다.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다. 흥곤은 옛 동지가 아닌가? 그 선은, 그 괴물은 나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었다. 계속 이어질 듯한 흥곤의 말꼬리를 자르고 나는 고맙다는 말을 전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돌아서는 나를 그가 불러 세운 건 바로 그때였다.

“아주머니, 이거 가지고 가시지요. 서울 올 때 아주머니 드리려고 개성에서 산 인삼입니다. 반 근밖에 못 샀습니다. 달여 드세요.”

흥곤의 손에는 정성들여 포장이 된 인삼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순간 그때까지 내가 움켜잡고 있던 허망된 끈의 한쪽 실마리가 내 손에서 풀려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괴물 같은 끈은 형체도 없이 사라졌고, 그 방을 들어서며 들었던 민세 부인의 첫마디에 그랬던 것처럼 내 양굴은 또 한번 벌겋게 달아올랐다. 몹쓸 사람. 성엄은 멀리서 나를 꾸짖고 있었다. 나는 그 개성 인삼을 여러 번 사양했다. 그러나 흥곤은 막무가내로 그 꾸러미를 내 손에 쥐어 주었다. 그것은 내가 달게 받아야 할 채찍질이기도 했다.

그 후로 민세 부인을 만나러 그 집을 몇 차례 더 드나들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만난 몇몇 사람하고도 대수롭지 않게 서로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김 흥곤과도 두어 차례 만난 것이 기억나는데 첫번째로 그를 만나 성엄의 소식을 들었을 때를 빼고는 긴 이야기를 나누어 본 일은 없다.

얼마 후 흥곤은 평양으로 떠났다. 그는 떠나기 전에 자기와 동행하지 않겠느냐고 내게 물었다. 그의 말투는 별다른 뜻 없이 그저 해보는 인사치레 정도로 보였고 굳이 내 대답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 나도 또한 인삼 덕택에 며칠씩 설사를 하던 배앓이가 나아 고맙다는 말을 전했을 뿐이다.

체포, 그리고 철장 속에서

김 흥곤과의 만남. 그것이 화근이었다. 내가 감옥살이를 하게 될 줄은 김 흥곤과 웃으며 헤어질 때까지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2월 10일에 국군이 다시 서울에 들어왔다. 자동이가 집으로 찾아온 것은 4월 하순이었다.

죽음이라는 담벽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다가 치워진 것만 같았다. 서로 생

사를 모르던 어머니와 아들이 다시 만나는 그런 순간에 무슨 말이건 말을 한다는 것은 가식이었다. 거짓말이었다. 어떻게 말이 나올 수 있을까? 한참 동안 자동이를 불들고 울고 나서야 그동안의 일을 물어 볼 정신이 들었다. 자동이는 남하하는 부대를 따라 부산에 가서 한 달 이상 있었는데 그곳에서 시누이를 만났었다고 했다. 부대가 다시 양평으로 와 있기 때문에 휴가를 얻어 나왔는데 혹시나 하고 집에 들렀다는 것이다.

“부산하고 대구에서 어머니를 얼마나 찾았는 줄 아세요? 난 피난 나오셨는 줄로 알았잖아요.”

“만났으니 되었다.”

자동이는 다시 부대로 돌아갔고 6월 초가 되면서 서울에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굳게 닫혀 있던 가게 문도 하나씩 둘씩 열렸다. 그동안 끊겼던 우편 배달도 다시 시작되었고 자동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편지를 보냈다.

9월 초 어느 날, 김 선근(金善根)이라는 여인이 나를 찾아왔다.

김 선근은 연초에 민세의 집에서 만났던 사람이다. 나를 찾아온 그녀는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인상이었다. 나는 그녀가 후회를 안 하고 그냥 서울에 있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고, 자신이 잡힐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당국이 자기를 체포하기 위해 쫓고 있다고 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종잡기가 힘들었다. 왜 쫓기는지, 왜 도망 다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김 선근이 그렇게 우리집을 다녀간 지 며칠이 지났다.

음력 8월 보름. 그렇다, 그날은 보름달 떠오르는 8월 보름이었다. 보름달을 보는 대신 나를 취조하는 수사관의 부릅뜬 도끼눈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나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죄명은 부역죄(附逆罪). 당시의 부역이란 죄명은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국사범과 똑같이 처리될 만큼 죄를 지은 사람이나 그 죄를 응징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나 다 같이 중대하고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죄목의 하나였다. 경찰에 잡혀와 비로소 알게 된 사실은 김 선근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며, 김 선근이 나를 찾아왔다는 사실이 직접적인 빌미가 되어 내가 체포되었다는 것이다. 김 흥곤과의 만남 역시 나의 범법 행위로 간주되었다.

종로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왜놈 경찰의 손에 이끌려 불잡혀 왔던 바로 그 종로서였다. 그러나 상황은 달랐다. 종로서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내 심정은 갈길이 빛겨나갔다. 왜놈 경찰의 손아귀에 들어갈 때와 부역죄로 동포

경찰관의 손에 끌려 들어갈 때를 견주어 보아 모든 게 너무나 달랐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숨김없이, 모든 걸 얘기했다. 숨길 것도 속일 것도 잡아뗄 것도 없었다. 담당 수사관도 내가 숨기는 것이 없다는 걸 눈치채는 기색이었다. 그러나 조사가 그것으로 끝날 리는 없었다. 그렇게 쉽게 끝나서는 안 될 성질의 사건이었다. 내가 쉽게 잡혀오긴 했으나 내가 잡혀왔다는 것이 내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까닭에서다.

조사는 계속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내게 손찌검을 하는 자도 있었다. 일정 때부터 같은 일에 종사하는 자임에 틀림없었다. 해방된 지 6년이 지난 당시에도 일본 경찰 출신들이 판을 치고 있었으며 심지어 경찰 고위 간부직까지도 부일 협력자가 자리에 턱 버티고 앉아 있는 형편이었다. 그때의 형편으로는 부역과 관련된 혐의만 있으면 체포되었고, 체포되었으면 반드시 기소되었고, 또 기소되었으면 어김없이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내 신분은 모두 밝혀졌고 과거의 행적도 어느 정도 드러났다. 내 신분과 과거의 행적이 드러나고 사실상 혐의받을 만한 일이 없다는 것이 나타나자 적당히 석방시켜야겠다고 눈치를 보이는 이도 있었으나, 반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 골탕먹여야 한다며 덤벼드는 이도 있었다. 체포 후 조사가 끝났으니 다음 차례는 기소였다. 어김없이 나는 기소되었다. 그리고 철창 문소리를 들었다.

옥(獄).

마룻바닥은 차가웠다. 햇빛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고 그 밀폐된 공간의 악취 나는 음산한 공기는 하루 두 끼의 밥 냉어리에 묻어 내 빈 속을 채웠다.

서러웠다. 슬펐다. 이유가 너무 분명한 쓸쓸함이었고 서글픔이었다. 여름 한철의 모시옷으로 그 속을 데우기에는 옷이 차라리 화사했고 아침 저녁으로 펴붓는 간수들의 육지거리가 절맞지 않게 그 옷 위에 떨어져내려 나뒹굴었다. 마루에 앉아 있는 사람이 치어드는 손은 자기에게 닥친 몹쓸 운명을 거역하며 채찍을 피하려는 안간힘의 가냘픈 도피였고, 간수가 머리 위로 치켜드는 손에는 여지없이 채찍이 들려 있었다. 철창의 달커덩거리는 문소리는 한 달 동안 나를 들볶았다. 무엇이 그토록 서글프고 서러우나고 질책하는 소리였다.

자동이가 전방에서 소식을 듣고 달려왔을 때 나는 죄수의 몸이었다. 철창을 사이에 두고 어머니와 아들이 마주앉았다. 아들은 울었다. 아들의 눈물은 뜨거울까? 내 것보다 더 차가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스물 셋의 나이인 아들의 눈물은 뜨거워야 한다고 빌었다. 속으로 빌고 또 빌었다. 자동이가 다녀

간 후로는 꽤 안심이 되었다. 그러나 밖에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전혀 몰랐는데 내게 변호사 한 사람이 불게 되었다. 나중에 유신 정권에 항거하여 활동했던 이 병린(李承麟) 변호사였다.

재판은 그야말로 어처구니없이 진행되었다. 나와 같은 죄로 기소된 20여 명의 피고가 함께 재판장에 섰다. 구체적인 죄명은 각각 달랐으나 모두가 '비상 사태하의 특별 조치령'에 의해 기소된 것은 똑같았다. 나를 포함한 피고인들은 서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고 아무런 상관도 없었다. 검사의 개별적인 논고 또한 전혀 없었다. '이 사람들은' 식으로 시작되는 검사의 논고에 따르면 1·4후퇴 당시 후퇴하지 않은 것이 유죄였다.

방청석에는 10명 남짓한 방청객만이 나와 앉아 있었다. 피고인 20여 명에 가족들이 대부분이어야 할 방청객이 10여 명. 그나마 변호사를 맨 사람은 나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나에 대해서는 검사가 간단하나마 별도로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검사의 단체 논고와 달리 구형만큼은 피고 개인에 대해 내려졌다. 5년에서 10년씩이었다. 그리고 30분간의 휴정. 다시 개정되자마자 시작된 언도에서 피고 거의 전부가 구형량의 3분의 2정도로 판결을 받았다. 나는 변호사가 있던 덕택인지 5년 구형을 받고 집행 유예로 그 자리서 풀려나올 수 있었다.

국회에서는 몇 해 후에 이 특별 조치령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결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다음에서야 터무니없는 재판 절차로 몇 해 동안 옥살이를 한 사람들이 풀려났으며 전과 기록도 삭제되었다. 그러나 물론 옹문의 보상 조치는 전혀 없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애를 망쳐 버린 그 특별 조치령이 국회에서 폐기 처분될 때까지 나는 이른바 '요시찰인'이었다. 시민중에는 '요'자가 적혔다. 언젠가 시민중 재발급이 있었을 때 성북서 사찰계의 어느 형사는 그 '요'자를 내 시민증 뒷면에 찍어 주었다. 그 형사가 보기에도 내 처지가 딱했던 모양이다.

"할머니 또 오셨어요. 할머님 줄 알았으면 미리 오시지 말라고 할걸. 제가 몰라서 또 오시게 했군요."

이따금씩 요시찰 인물을 경찰서로 출두시켜 근황을 살피곤 하던 바로 그 사찰계 형사의 말이었다.

그 무렵 요시찰인 명부에 이름이 오른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예비 검속'을 당하곤 했다. 나도 두어 번 그 예비 검속을 당한 일이 있는데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이 내한했을 때(1952년 12월 2일임 : 편집자 주) 검속당했던 것만 기억에 남아 있다.

6·25라는 거목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회한의 잔뿌리를 내려 박았다. 그리고 이 나라의 땅 덩어리뿐만 아니라 사람과 정신마저도 두 동강 내버렸다. 그런 6·25는 내게 처참하거나 극악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슬그머니 성엄을 빼앗아 갖고 맹랑하게 나를 한 달 동안 감옥에 집어 넣었었다. 그리고 나를 주저앉게 만들었다. 집 없이 국경을 넘나들던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한 달간의 그 차가웠던 마룻바닥이 내 가슴마저도 식게 만든 것이다. 전운이 걸린 다음 해 1954년 6월에 자동이가 미군 부대 생활을 청산하고 「조선일보」에 견습 기자로 들어가 언론계에서의 새 생활을 시작하였다. 자동이의 나이 스물 일곱이었고 내가 쉰 다섯의 나이였다. 나는 아직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심정이었지만 사회에서 내가 할 일을 찾지는 못했다. 6·25 휴전을 한 획으로 삼아 내 주변을 정리해 보았으나, 나는 이제 뒷전에서 시어머님을 모시고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세상사에 대한 관심만큼은 쉽게 버릴 수가 없었다. 아니, 관심이라는 것은 찾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내가 가지고 태어난 소질이고 본능 같은 것이었다. 관심은 때와 필요에 따라 열고 닫는 문이 아니라 항상 세상과 잇대어 있는 끈인지도 모른다.

나는 6·25 전과 마찬가지로 6·25 후에도 그런 끈을 세상과 이어놓은 채 살았다. 허망한 명예나 이름을 바라서가 아니었고 알량한 재력이나 권력에 미련이 있어서도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살아 있는 한 내가 지내온 날들과 연결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끌나는가를 똑똑히 보고 싶어서였다. 맥없이 서쪽 하늘 땅 밑으로 묻혀 버린 황혼녘의 저녁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칠후 같은 오밤중, 그러나 마침내 햇살을 받고 동터 오른 새벽, 이 모두를 지켜본 사람이 계명성(鶴鳴聲)을 듣고도 잠자리에 들지 않고 졸린 눈을 비비며 나머지 아침을 마저 지켜보려는 심사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내 땅에서 맞이하는 내 나라의 아침은 춥고 쓸쓸한 것이었다. 자유당 정권의 물불을 못 가리는 부패상은 3·15 부정 선거로 귀착되었고 결국 4·19의 열기도 잠깐, 5·16이 뒤를 이으면서 유신으로 뻗쳤고 마침내는 그 정권도 끌이 좋지 못했다.

5·16 직후 언론인 다수가 박 정권의 초빙으로 정계에 투신하여 출세 가도를

달릴 때 아들 자동이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자동이 스스로가 거절했다. 아마 아들이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서서 말렸을 것이다. 자동이가 이 승만 정권 당시 경무대 출입 기자로 일할 때, 우남 면전에서 직접 회견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자동이는 결코 집안 이야기를 비치지 않았다 한다. 그런 아들의 성품은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 5·16 직후의 이른바 그 출세의 기회라는 것은 아들 자동이에게나, 실질적으로 그가 가장으로 있는 우리 집안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셈이었다.

고지식하달까 강직하달까 좀처럼 남에게 머리를 수그리지 않고 타협할 줄 모르는 아들의 기질 탓인지 자동이가 언론계 일선에서 물러난 후 손을 대었던 소규모의 여러 사업은 모두가 신통치 않았고 우리집은 셋방살이나마 다행으로 여기고 살아야 했다.